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짠물 수비에 패스게임... 중원을 지배했다

■ '월드컵 챔피언' 스페인 축구의 힘

스페인 12일(한국시간)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1-0으로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무적함대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축구잔치 월드컵은 세계 축구의 흐름과 미래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무대다. 스페인축구는 유럽에 이어 세계까지 제패하면서 세계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토탈사커의 재해석 '실리축구'=이번 대회에서는 화려함보다는 조직력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경기운영으로 승점을 챙기는 '실리축구'가 대세를 이뤘다.

스페인이 이번 대회 7경기에서 올린 득점은 8골뿐이지만 단 2실점만 하는 짠물 수비 덕에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스위스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1로 진 이후 전승을 거둔 스페인은 특히 16강 토너먼트 이후 4경기에서는 모두 1-0으로 이겼다.

축구강국들은 점점 투톱 대신 원톱을 세우고 미드필더에 많은 선수를 배치한다.

포백 수비진과 원톱을 제외한 다섯 명이 미드필드에 포

뛰어난 개인기로 미드필드 강화

점유율 높이며 안정적 경기운영

세계 최강클럽 바르셀로나도 한몫

진하면서 현대축구의 기본 요소인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전통적 윙플레이보다는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다. 다비드 비야(바르셀로나)를 원톱에 세우고, 중앙의 사비(바르셀로나), 사비 알론소(레알 마드리드), 세르히오 부스케츠(바르셀로나)와 좌·우 날개 페드로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이상 바르셀로나) 등 5명을 미드필더에 배치한다. 스페인 대표팀의 강점은 바로 세계 정상급의 미드필더진에서 찾을 수 있다.

체격은 크지 않지만 개인기가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아 가지기한 패스게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일품이다. 네덜란드와 결승에서는 76%에 그쳤지만, 스페인의 이번 대회 평균 패스성공률은 80%로 32개 참가국 중 1위다. 기술축구의 대명사 브라질(79%)도 스페인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적함대의 원동력은 'FC바르셀로나'=스페인 축구는 1970년대 세계축구 변화를 이끌었던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네덜란드식 '토탈사커'를 가장 현대적으로 소화해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스페인 축구의 원동력인 세계 최강 클럽 FC바르셀로나와도 무관하지 않다.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이 지휘하는 스페인 대표팀은 2008-2009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사상 첫 '트레블'(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스페인 국왕컵·프리메라리가 등 우



막아 보라

12일(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의 시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연장 후반 11분 천금 같은 결승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승 3관왕)을 달성했던 바르셀로나 멤버들을 그대로 대표팀에 옮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한 스페인 대표 선수 23명 중 발렌시아를 떠나 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다비드 비야를 제외하고도 7명이 현재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이들은 대표팀의 주축이다.

델 보스케 감독은 "대표팀은 스페인 전역에서 온 선수들로 이뤄져 있다. 우리 대표팀은 통합돼 있고 스페인 전체도 똑같이 통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스페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강 전력의 바르셀로나의 멤버를 주축으로 대표팀을 꾸려 결국 스페인 축구의 한을 풀었다. /연합뉴스



포틀란, 월드컵 첫 4위팀서 MVP

우루과이를 40년 만에 월드컵 4강으로 이끈 스트라이커 디에고 포틀란(31·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2일(한국시간) 포틀란이 월드컵 취재 기자단 투표에서 전체의 23.4%를 얻어 득표율 21.8%를 기록한 네덜란드의 중원사령관 베슬러이 스네이더르(바이에른 뮌헨)를 제치고

골든볼 수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틀란은 조국 우루과이가 독일과 3-4위전에서 겨 4위에 그쳤지만 인상적인 활약으로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4위팀에서 골든볼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포틀란은 이번 월드컵 3-4위전까지 7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루이스 수아레스(아약스), 에딘손 카바니(팔르르모)와 3각편대를 이루며 5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오렌지 군단' 현대축구 주역 부활

빠른 역습·끈끈한 수비 조직력

'이기는 축구'로 결승까지 올라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현대 축구의 주인공으로 부활했다. 남아공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에 0-1로 아쉽게 져 월드컵 첫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세계 축구를 주름잡던 전통의 강호가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토탈축구의 원조인 네덜란드는 화려한 공격력이 최대 강점으로 꼽혔고 2006년 독일월드컵까지도 이런 특색을 전통을 계승하듯 유지해왔다.

네덜란드는 누구에게나 깔려온 팀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1974년과 1978년 월드컵에서 결승에 오른 뒤 토너먼트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화려한 네덜란드식 축구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이뤄 조직력이 탄탄한 팀에는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 네덜란드 감독은 대

표팀을 화려한 공격을 지향하는 축구에서 기동력을 이용한 빠른 역습과 끈끈한 수비 조직력으로 승점 3을 따내는 축구로 변화시켰다.

'내용이 좋아야 좋은 축구'라는 강박관념을 벗어난 지고 '이기는 것이 좋은 축구'이자 현대 축구라는 실리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는 이 같은 성향의 변화가 약착 같은 승리욕을 불러 결국 네덜란드를 결승전까지 끌어 올렸다.

화려한 공격과 다득점에 대한 문란을 버리고 이기는 것이 지상과제라는 네덜란드의 새 비전은 본선 6연승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덴마크를 2-0으로 이겼을 뿐 일본(1-0), 카메룬(2-1), 슬로바키아(2-1), 브라질(2-1), 우루과이(3-2) 등과 경기에서는 모든 1점차로 이겼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은 결승전에서 석패한 뒤 "좋은 내용의 축구가 아니라도 이기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네덜란드의 2010년판 비전을 다시 강조했다. /연합뉴스



'떠오르는 별' 윙러, 득점왕-신인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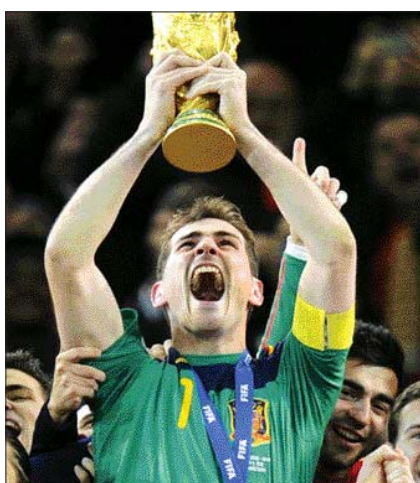
독일 축구의 '떠오르는 별' 토마스 뮐러(21·뮌헨)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득점왕(골든부트)과 신인왕(베스트 플레이어)을 한꺼번에 차지하는 영광을 맞았다.

뮐러는 12일(한국시간) 새벽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5골3도움(473분)을 기록해 치열하게 득점 경쟁을 펼쳤던 다비드 비야(스페인·5골1도움·635분)와 베슬러이 스네이더르(네덜란드·5골1도움·652분), 디에고 포틀란

(우루과이·5골1도움·654분)을 제치고 당당히 득점왕인 '아디다스 골든 부트' 1위에 올랐다.

뮐러는 비야와 스네이더르, 포틀란과 나란히 5골을 넣었지만 도움에서 앞서면서 득점왕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 '골든 부트'는 득점이 같으면 도움 갯수와 출전시간을 따져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뮐러는 이번 대회 신인선수상도 수상해 플로리안 알베르트(헝가리) 이후 48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신인왕-득점왕을 모두 품에 안는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거미손' 카시야스, 최고 수문장 야신상

최고의 수문장에게 수여되는 야신상은 스페인의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29·레알 마드리드)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번 월드컵 7게임에 모두 출전해 단 2골만 허용했다.

특히 결승 토너먼트 4경기에서는 단 1골도 허용하지 않아 스페인의 4연승 1-0승을 이끌었다.

카시야스는 파라과이와의 8강전에서 상대 오스카르 카르도소의 페널티 킥을 막아냈고, 네덜란드와의

결승전에서도 상대 아르넬 로번과의 1대1 대결을 두 차례나 선방해 사실상 스페인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그는 부른, 브라질의 줄리우 세자르(인터미란)와 함께 세계 3대 골키퍼로 꼽힌다.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으로 1999년 19세 이하(U-19) 유럽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인 카시야스는 2000년부터 '지구방위대'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수문장으로 활약해왔다. /연합뉴스